

시선

사설

우정원 20년 전의 족쇄,  
풀어낼 논의 시작해야

대학생에게 기숙사는 집이다. 법적으로도 기숙사는 주택으로, 주거와 삶의 공간으로 인정받는다. 캠퍼스 곁에 삶의 공간을 짓는 것은 학생의 주거권과 더 나아가 보다 나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학교의 최소한의 의무다.

어느 서울 시내 대학과 같이 우리학교는 기숙사 문제로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겪었다. 서울캠퍼스가 절대적인 호실 부족으로 신음하는 사이,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20여 년에 걸친 긴 숙박으로 인해 발생한 기숙사 문제에 마주하고 있었다.

국제캠퍼스 우정원 기숙사는 1995년 당시 (株)부영이 기증형식으로 우리학교에 건립을 시작했다. 97년 4월, 골조공사까지 완료됐지만 IMF 이후 경기 악화로 부영은 그간 공사분과 모든 권한을 학교 측에 위임했다. 학교 측은 LG건설(현 GS건설)과 협약을 맺고 우정원을 완공했다. 당시 돈으로 공사비용 1백 5억 원 중 55억 원을 건설사가 부담하는 대신 완공 후 20년 동안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협약의 골자였다. 지난 7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인해 촉발된 우정원 논란도, 시설에 비해 턱없이 비싼 기숙사 임사비도,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는 시설도 모두 이 20여 년 전 협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학주보가 진행한 국제캠퍼스 기숙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현재 학생들의 인식을 대변한다. 응답자의 8할이 기숙사의 비싼 비용을 지적했고 반 수가 노후된 시설을 꼬집었다. 20년 전에는 그래도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캠퍼스 정문 건너 서천·영통지구 등 국제캠퍼스 인근은 급속도로 개발됐고 깔끔한 원룸 건물이 비운 뒤 죽순 자라나듯 빼곡히 자리했다. 2인 1실, 낡은 공조장치와 신발을 벗을 수 없는 흠바닥 기숙사에 지불하는 월세와 비슷한 금액으로도 정문 밖에서 편히 뭉 누일 방을 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숙사 비용은 기숙사의 사전적 의미와도 맞지 않는다. 사전은 기숙사를 ‘싼 값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한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는 와중에 구태를 지키고 있는 기숙사가 학생들의 선택에서 탈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논란 이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는 우정원 운영권 조기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 운영권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GS건설로부터 이를 조기에 돌려받아 기숙사비, 시설과 같은 이후 운영을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당장 학교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지금도 학생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부족한 주거환경에 잠을 청하고 있을 터이지만 조기 이관 논의가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기숙사가 현재 학생이 바라는 주거 환경에 못 미친다는 것은 조금 부풀려 말하면 그 존재의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격과 더불어 시설물, 식사, 방역 등 서비스는 주거권과 직결된다. 기숙사의 주거권은 그 본질로 인해 곧 교육권으로도 이어진다.

10여 년 전부터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했던 민자 기숙사는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우리학교가 우정원을 조기 이관받아 기숙사의 의의에 부합하는, 입사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숙사로 탈바꿈 시킨다면 이것은 우리학교가 대학가에 남기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치과대학 박영국 학장

FDI 협의회 집행위원 당선

미디어·여론 동향 2017.9.25 - 10.15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간호과학대학 50주년 기념 ‘춧불의식 및 비전선포식’이 지난달 27일 열렸다.(간호대, **춧불의식으로 간호이념 다져/대학주보 온라인, 2017.9.27**) 춧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는 매년 진행되지만 올해는 50주년을 맞아 간호과학대학 비전선포식도 함께 개최됐다. 학부생들은 춧불의식을 통해 간호사의 소명의식을 다시 생각했다. 이어 한국간호과학회 이인숙 회장과 임영진 의무부총장의 축사와 함께 그간 간호과학대학 발전에 공헌한 동문, 직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초대 동문인 67학번들이 자신의 경험을 후배에게 들려주는 특별강연도 열렸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이소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LINC+와 후마니타스

두 마리 토끼 잡기

설지연 기자

iy0622@khu.ac.kr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다 모두 놓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우리학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위시로 한 기존 인문학 중시 기조에 최근 LINC+ 사업 선정으로 사회 수요에 맞는 현장 실습 능력을 증진하는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LINC+ 사업은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협력 육성 사업이다. 사업선정 대학은 사회 수요에 맞춰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실습을 보내고, 현장실무가 중점이 되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쉽게 업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양성해야 한다.

학생은 대학 입시 원서를 쓰는 단계부터 어느 학과에 진학을 해야 취업이 잘되나 고민한다. 그 후에는 스펙 경쟁에 합류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LINC+ 사업의 목표는 그런 학생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대학은 국고를 지원받아 학생을 가르치고 취업을까지 오르지 원·원으로 보인다. 더 볼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학이 지원하고 기업이 성

장하면 자연스레 일자리가 창출되니 사업 취지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 되는 점이 있다. 우리학교가 그간 취해왔던 기조가 무너지까 하는 걱정이다. 우리학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설립하며 인문학을 중시해 왔다. ‘취업사관학교’를 표방하는 여타 대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특색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취지다. 물론 일각에는 인문학을 중시하는 후마니타스 칼리지가 학생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후마니타스 칼리지 설립은 당시 국내 대학 중에서는 획기적인 선택이었고 타 대학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학교의 상징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 LINC+ 사업 계획서 안에는 ‘사회맞춤형교육과정’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다. 산업체의 요구와 참여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한다는 것이다. 사회맞춤형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과의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 6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한 쪽에서는 ‘인문학’을 강조하고, 한 쪽에서는 취업을 위한 ‘현장 실습 능력’을 강조하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것이다.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현장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자체를 모두 부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변화에 맞게 대학 또한 변화해야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학교가 취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학생의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로 나섰으니 부단히 노력해 두 마리를 모두 손 안에 넣길 바란다.

독자들을 갈라놓는  
유력 신문들의 페이스북 네티지

세시봉

이수형 (편집장)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에 리처드 탈러 교수가 선정되며 그의 ‘네티지이론’이 다시금 화제다. 의사결정을 부추기는 마케팅 기법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입이 가능한 네티지이론을, 기자는 작금의 언론행태에서 찾고 있다. 본래 유통접객업의 영업전략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이는 이론이지만, 독자반응이 즉각적인 페이스북에서는 특히 언론의 생태도 별반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언론들은 ‘슬쩍 옆구리 찌르기’를 잘한다. 대형마트는 계산대 앞에 껌이나 초콜릿을 배치한다. 패밀리 레스토랑은 고객회전을 높이고자 식사 시간을 제한한다. 일간지도 그들만의 영업전략으로 독자를 조련한다. 페이스북은 언론 입장에서선 훌륭한 네티지환경이다. 다만 불행하게도, 독자에게 분열의 장과 싸움터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이 스스로의 정파성을 규정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은 독자를 양분한다. 독자는 선호하는 신문을 쉬이 바꾸려하지 않는다. 진보지가 어느 날 보수지의 논조를 뒀다고 해서 보수지의 독자가 진보지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언론이 스스로의 정파성을 강화하는 것을 영업전략으로 삼아왔는데, 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이 네티지를 보다 쉽게 장치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언론의 네티지 중 대표적인 것이 무보도다. 자신의 독자층의 심기를 거스르는 이슈거리는 보도하지 않는 식이다. 무보도는 엄연히 언론윤리에 저촉되는 행위다. 언론비평 전문지를 표방하는 미디어오늘이나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따금 언론들의 무보도 행태를 비판한다. 페이스북은 무보도 행태를 감추거나 이를 쉽게 하는 효과가 있다.

페이스북은 거대하나 2차 유통망에 불과하다. 언론사는 홈페이지에 게재할 기사 중 2차로 페이스북에 올릴 기사를 자신의 정파성에 맞게 선별한다. 문제는 언론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기사를 읽는 독자보다 페이스북으로만 기사를 접하는 독자가 월등히 많다는 데 있다. 페이스북에 기사를 올리지 않는 것만으로 언론사는 독자들로부터 기사를 숨길 수 있다. 보도 자체는 이뤄졌으므로 무보도라고 비판하기 곤란해지는 효과는 덩이다.

독자로서 각 언론사로부터 적은 숫자의 기사를 접하는 탓에 무보도를 알아채기도 어렵다. 언론이 ‘큐레이팅’한 페이스북 기사에 익숙한 독자 중 무보도를 떠올려 내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부 독자뿐이다. 독자들은 꼭 전달받아야 하는 보도가 있다는 것은 잊은 채로 ‘그러려나’ 할 뿐이다.

무보도가 반복되고 독자 간 정보의 차이가 커질수록 독자들은 분열한다. 여기에 페이스북 관리자의 ‘페이스북에서나 가능한’, ‘비공식의 탈은 쓴’ 자극적인 마디가 첨가되면 분열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강화된다. 조선일보가 삼성 영업이익을 말하면 댓글은 정부의 ‘기업 죽이기’를 성토했고 한겨레신문이 같은 것을 말하면 댓글은 ‘이재용의 무가치함’을 비난한다. 이미 페이스북은 논의의 장이 아닌, 예민하게 대치하는 양쪽 여론을 먹고 자라는 언론의 놀이터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김해경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레미레)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기림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